새 하늘 새 땅의 성영신 임마누엘

(계21:1~8)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새 하늘 새 땅의 성영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영신 임마누엘'
좀 어색한 단어가 끼어있지요?
'성영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임마누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영신을 한자로는 이룰 성(成), 신령 령(靈), 몸 신(身)인데 이걸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성육신(成肉身)입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육신이 되셨다. 육신의 몸을 이루셨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곳에 임하게 되면, 이제 성영신(成靈身) 임마누엘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임마누엘 사건의 완결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성형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뻐지고 싶은 욕망, 멋있어지고 싶은 욕망,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갖는 소망이죠. 늙어도 멋있게 늙으면 좋잖아요.
저는 멋있게 늙는다는 말을 하게 하면 그 표본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숀 코네리.
그 분은 젊었을 때에 007 영화에 나온 것과 늙어서 영화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나오시는 모습이 훨씬 더 멋있어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배우 중에서는 그렇게 멋있게 늙어 가시는 분을 모르겠어요.
숀 코네리는 제가 인격적인 교류를 가져보질 않았으니 사람됨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외모 자체가 너무나 멋져요. 어떻게 하면 젊었을 때보다 늙어가면서 더 멋져질까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멋있게 늙기는 틀린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 변해가는 상태를 진찰해 보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멋있기는 틀렸고, 그렇다고 그렇게 속상하진 않습니다. 그저 머리 크고 다리 짧은 이 몸을 가지고 잠깐 견디면 성영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형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만 참아요. 거울에 비쳐진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영신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옛 하늘과 옛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비참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오신 사건을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성육신 사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반복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역사를 그 형태별로 단순 나열해 보면 회막의 임마누엘, 회막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인 선택받은 선민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선민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3대 7중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정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할 수 있는 신부의 단계가 되고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새 하늘이고 새 땅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형은 육체의 생긴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 아닙니까?
이 성형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성영신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 되셨는데,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서 성영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영으로 만들어진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에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에도 미스 서울이 있다고 하면, 미스 서울이 완벽하게 예뻐요. 그런데 미스 전남도 완벽하게 예뻐요. 완벽하게 다른데 완벽하게 예쁩니다. 도대체 심사위원들이 미스 서울과 미스 전남이 완벽하게 다른데도 누가 더 예쁜가를 구분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미스 서울의 그 성영신 된 모습이 더 이상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스 전남을 보는 데 이것도 더 이상 예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예쁠 수 없다는 것은 한 사람만 있다는 것인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14만 4천명으로 상징되는 성도의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제일 예쁘고, 제일 잘 생겼어요. 또 다른 사람을 봐도 사람은 다른데 제일 잘 생겼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들어가서 서로의 모습을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아는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예쁠 수 없을 만큼 제일 예뻐요.
그러니 성형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해서 무슨 변신을 꾀하겠다고 합니까?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온 무엇의 대칭 개념입니까?
바벨론의 대칭 개념이에요.

바벨론을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번영이 있는 곳, 이 세상적인 성공이 있는 곳, 이 세상적인 부흥이 있는 곳, 모든 사람의 이상향,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바라는 바가 바로 바벨론에 도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와는 반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다 제쳐놓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려고 바라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임, 성도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비유가 됩니까?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나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한 것 같더라'
말 그대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지금 아래에 있다가 올라가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야기는 신부와 남편의 관계에서 한 여자가 신부가 되는 것은, 남자가 지금 이 지구상에 35억이 있지 않습니까? 35억 남자가 있어도 한 여자가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랑이 될 수 있는 한 남자가 생기면서 그 신랑으로부터 이 여자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아예 승부를 내려는 사람들, 사도 요한 그 시절의 결혼한다는 것의 신부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내 인생을 신랑 안에 두는 겁니다. 신랑을 신부 안에 둘 수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신부와 관계없는 삶의 영역도 만나야 하지만, 신부는 신랑의 인생 안에 자기의 인생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때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내려다보실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만져지고 보이는 것 중에 별의별 좋은 것이 많은데도, 굳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기를 쓰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제 사랑하는 남

자를 만나서 그 남편과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쁜 신부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뻐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하는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만을 갖고 기뻐하겠다고 기를 쓰고, 되지도 않는 그 어려운 일을 한 번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예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살림집으로 마련해놓고, 결혼해서 그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거창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은 사망과 애통과 곡은 눈물의 이유가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물의 이유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너무 예뻐서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완전히 우리에게 반해버리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성과 반대적인 삶을 산 우리들에 대해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신혼집으로 마련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로 영원토록 우리를 매일 같이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 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아닌데 날마다 라는 것이 있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아니고 영들의 차원인데.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신랑의 위치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며 예뻐서 죽을 정도로 날마다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대하십시다!
이것 말고 이 세상에서 뭘 바라겠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신혼살림을 차려놓고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눈물이 나올 이유가 없게 한 마디로 기쁨이 넘쳐나게 깨가 쏟아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잡하고 궁색하게 뭘 이루겠다고 소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의 삶을 바라십시다.
그렇게 성육신의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므로 성영신 되어서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단계로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다시 한 번 규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한 마디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라고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 신부에 대해서 신랑이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삶, 이 모든 것들을 상속 받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인데 연결 되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라고 연결됩니다.
‘이긴다’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인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
여기 설명이 좀 더 필요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을 목말라 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목말라하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을 목말라 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름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인 이 분을 목말라 한다.’라는 말의 비유를 한 번 들어보겠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용서해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최종적으로 읽어 보시라고 지도교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썼어요. 왜냐하면 결론을 쓰기 전에 몸통이 되는 본문을 제출해서 교수님이 읽으시면서 수정하는 부분들을 다 수정한 다음에 결론을 써야 되니까.

결론을 쓰지 않은 채로 제출을 했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주 흡족해 하세요. 놀랍다는 표현을 하시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을 쓰지 말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결론부가 없는 논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논문의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이 없이 어떻게 논문이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논문의 논리가 폐쇄가 되었다는 거예요.
폐쇄가 되었다는 것은 논리에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부가 필요 없이 몸통만으로 충분히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완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프린스턴에 1년 가 있을 때 보니까 거기 제 논문이 와 있더라고요.
박사 학위 논문으로 통과가 되면 독일에서는 200권인가 300권인가를 책을 만들어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에 관계가 있는 신학대학이나 신학기관으로 이 논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괴팅겐 대학에 있는 제 논문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있는 제 논문. 신학대학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책이고 논문이고 결론이 없는 논문은 제 것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 뒤져보진 않았지만 결론이 없는 논문을 제가 본적이 없어요. 하여간 그래서 제 논문은 결론이 없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마지막이 없는 겁니까?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의 마지막은 교수님의 인정이 마지막인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시작도 '이런 주제로 쓰겠습니다.'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수님의 승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의 처음과 마지막은 교수님의 승인과 인정입니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 해봐요.
사업을 합니다. 사업 시작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합니다. 시작이 돈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정리할 때에 얼마나 벌었는지 돈을 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라는 말과 내가 사업한다는 일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결국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학위가 아닙니다. 학위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에 얻어내는 것은 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지도교수님의 승인과 인증을 얻어내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왜 합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승인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목말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까? 돈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식을 키운다는 활동을 하는 동안에, 내가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를 하나님의 승인과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말라하지 않고, 자식의 성공을 목말라하고 자식의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말라서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찾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다릅니까?
바벨론 성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갈망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활동은 박사논문을 쓰는 사람이 지도교수님의 승인과 인정과 지도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승인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장사하고 사업하고 애 키우고…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왜 이기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실제 사업을 해보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보면 알잖아요.
손님이 한 사람도 없는 날이 있어요. 문 닫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게 갈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면 기뻐요. 갈망하는 것이 뭔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걸 갈망하는 것이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지도교수님의 인정과 지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지도교수님의 마음에 드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분은 유수의 신학대학에서 자리를 잡은 교수님으로써 그 분이 인정하면 이 사람은 신학계에서 자기 혼자 공부하고 자기 혼자 이론을 말해도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본 영화 중에 007영화가 있어요.
하도 오래 돼서 기억이 희미한데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권선징악이 이 영화의 주제 같은데요.) 마지막 장면에 007이 악당을 물리치는데, 악당이 사막 한 가운데에 아지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지트가 다 붕괴되고 악당이 패배하게 되어서, 007이 악당의 목에 자동차 엔진 오일을 걸어서 사막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악당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상하게 그 시체 뱃속에 엔진 오일이 들어있었다고 나옵니다. 사막에서 갈증이 심하니까 엔진 오일을 마셔버린 거예요. 엔진 오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갈증이 나니까 엔진 오일을 마

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갈증 나요? 자식의 형통이 갈증 나요? 내 건강이 갈증 납니까? 결혼 못한 처녀들은 신랑감이 갈증이 납니까? 내가 못 생겼으면 성형이 갈증 나고 명품백이 갈증 납니까?
이게 다 엔진오일이에요. 이겨내야 해요. 목마르다고 그걸 헐떡대고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영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임마누엘의 삶이 시작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갈망될 때에 이겨내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마시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해 주세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자녀가 조금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날 때에, 그걸 붙잡고 끝까지 나가면 엔진 오일 마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선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병원가고 난리를 치기 전에 먼저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성영신의 임마누엘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신혼집으로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것이 목마릅니까?
성형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엔진오일 마시지 말고 이겨내고 하늘만 소망할 것입니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세상 끝나고 잠깐 시간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살펴보시고 '너는 이-만큼 면류관을 받아라.'라고 상 주시면서 신혼집으로 불러들이실 때에 춤추며 들어가는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 우리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고 웃겠지만 하나님! 그들이 모르는 너무 기가 막히고 커서 그들이 알 수 없는 성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 또 감사드리며 성공한 자

로 가슴 펴고 웃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